



서울 귀네슈 감독

지난 3일 밤 열린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2008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결정전 1차전이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우승컵은 결국 2차전(7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승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2차전 변수는 각기 다르다. 수원은 주전들의 부상이 문제이고, 서울은 체력 부담이 걱정이다. 수원은 공격수 서동현과 하태균, 이천수가 모두 부상으로 팀 훈련을 제대로

### 울산과 PO서 체력 소모 수원전 후반 집중력 급락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태균과 이천수는 올 시즌을 아예 접은 상황.

여기에 플레이메이커인 미드필더 이관우도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1차전 후반 시작과 함께 백지훈 대신 그라운드와 나와 갈날 크로스로 동점골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이관우는 사실 사타구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진통제를 먹고 뛰었다.

한 달 가까이 쉬다가 1차전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을 얻어맞은 뒤 기어이 동점골을 터트려 무승부를 이끌어낸 수원은 홈 2차전에

## 7일 K-리그 챔프 2차전 앞둔 양 감독 고민은?

# 서울 '체력 고갈' 수원 '주전 부상'

서 체력이 충분하고 경기 감각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 하지만 부상에 따른 공백을 어떤 용병술로 메우느냐가 차범근 수원 감독이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은 고갈된 체력을 최대한 빨리 회복

대신 스리백으로 전환했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동점골을 얻어맞고 말

았다. 세를 귀네슈 서울 감독은 "선수들이 체력이 달라보니 후반 들어서는 자꾸만 밀로 쳐져서 자연스럽게 수비 축구가 돼 버렸다"며 아쉬워했다. 부상 선수는 거의 없어 수원에 비해 나은 상황. 1차전 선제골을 뽑아낸 브라질 출신 왼쪽 윙백 아디가 부상으로 후반에 교체됐지만 뛰가 난 정도여서 2차전 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체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있

### 수원 하태균·이천수 출전 불가 MF 이관우 '진통제 투혼'

다. 90분 정규시간으로 끝난 1차전과는 달리 2차전은 전·후반 90분 동안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골장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전망이다.

이를 쉬고 치른 1차전에 비해 2차전의 경우 하루를 더 쉬면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서울은 안도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 서울 구단은 단체로 팀거를 맞는 것을 고려하는 등 체력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차범근 감독



## 위성미 Q스쿨 순조로운 출발

첫날 3언더 공동 6위

양희영은 5언더 3위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출전권을 따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응시한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사진)가 첫날 상위권에 올랐다. 위성미는 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데이тона비치의 LPGA인터내셔널골프장 레전드코스(파72)에서 치른 캘리포니아스쿨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6위를 달렸다.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두차례나 우승한 양희영(19·삼성전자)은 챔피언스코스에서 5언더파 67타를 때려 한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공동 3위)에 올랐다.

2차 예선에서 수석 합격한 최은정(17·김영주골프)도 2타를 줄여 공동 9위에 나섰다.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삼금왕을 지낸 오야마 시호(일본)가 8언더파 64타를 뽑아내 단독 선두를 달렸고 미야자토 미카(일본)가 66타를 쳐 뒤를 이었다.

1차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안선주(21·하이마트)는 6오버파 78타 부진으로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연합뉴스

오태근 5언더...선두와 2타차

PGA Q스쿨 1R

오태근(32·이동수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캘리포니아스쿨 첫날을 순조롭게 마쳤다. 오태근은 4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웨스트골프장 잭 니클러스 토너먼트 코스(파72)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마크고 이글 1개, 버디 4

개를 끌어담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6일 동안 펼쳐지는 자국의 행군에서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오태근은 7언더파 65타를 친 메이지 매닝(미국·7언더파 65타) 등 3명의 공동 선두에 2타차로 따라붙었다.

PGA 투어 카드를 잃어 캘리포니아스쿨에 다시 응시한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36위로 밀렸다.

홍순상(25·SK텔레콤)은 이븐파, 배상문(22·캘러웨이)은 1오버파, 이원준(22·LG전자)은 2오버파를 쳐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 김형성 한국프로골프 대상

부상 40년산 위스키 1병

프로골프투어에서 올해 가장 고른 성적을 낸 김형성(28·하이마트·사진)이 한국프로골프협회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렌타인대상을 받았다.

김형성은 4일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 격인 발렌타인대상과 함께 세계에서 8명 밖에 없다는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 40년산 1병을 받았다.

김형성은 올해 18개 대회에 출전해 토마토저축은행오픈과 에이저저축은행몽베르오픈 등 두차례 우승과 준우승 4



차례를 포함해 12차례 '톱 10'에 들었다. 상금랭킹 1위 선수에게 주는 스티븐 상금왕 타이틀은 배상문(22·캘러웨이)에게 돌아갔다. 한편 박삼구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은 SBS코리안투어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한국프로골프의 중흥을 이끈 SBS 윤세영 회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지존' 한·일 대항전 샷 조절 '골프지존' 신지애가 4일 제주 핀크스골프장에서 제9회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 대항전(6~7일)을 앞두고 연습을 하며 벵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빠진 맨유 4강행

### 잉글랜드 프로축구 칼링컵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최근 강행군을 이어온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리그컵대회인 칼링컵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박지성은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리그컵 8강 홈 경기에서 후보 선수 명단에 머물렀지만 결국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박지성은 지난달 8일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전부터 1일 맨체스터 시티전까지 최근 팀이 치른 6경기 연속 출전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가대표로 2010 남아프리카공

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사우디아라비아 원정경기도 뛰는 등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앞으로 소화해야 할 일정이 더 빽빽한 데다 이날 팀이 일찌감치 많은 골을 터뜨려 앞서 가자 체력 안배를 위해 박지성을 쉬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맨유는 혼자 네 골을 몰아넣은 카를로스 테베스의 활약으로 블랙번의 추격을 5-3으로 뿌리치고 4강에 올랐다.

한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홋스퍼는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왓포드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45분 로만 파블류첸코의 페널티킥 동점골과 후반 31분 대런 벤틀의 결승골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 "안정환과 재계약하고 싶다"

#### 프로축구 부산 안병모 단장

"내년에도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안정환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올해 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미국프로축구(MLS) 진출설이 돌고있는 안정환(32)과 재계약을 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 안병모 단장은 4일 "최근 안정환의 해외진출 얘기가 대두하고 있지만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안정환과 직접 만나 내년에도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부산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구단은 최근 안정환이 MLS행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부산은 5일부터 시작하는 팀 훈련에 맞춰 안정환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펼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히딩크 밀린 월급 받게 돼"

#### 약 75억원...러 스포츠지 보도

러시아 팀을 '유로 2008' 4강에 진출시켜 러시아 축구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거스 히딩크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밀린 월급을 받게 됐다고 4일 러시아 일간 소베츠키 스포츠지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히딩크 감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단 첼시 구단주이자 러시아 2대 부자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히딩크 감독에게 50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브라모비치는 최근 러시아 축구협회 회장인 비탈리 부트코 체육관광청장, 장관, 세르게이 카르코프 국가 축구아카데미 회장 등과 만나 히딩크 감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2006년 7월 러시아 대표팀을 이끌 때부터 아브라모비치에게서 연봉을 받았던 히딩크 감독은 최근 2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문성민 9득점...팀 5연승 견인

### 독일배구 분데스리가

독일배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문성민(22·프리드리히스하펜)이 9득점을 올리며 팀의 5연승을 이끌었다.

프리드리히스하펜은 이날 슬리로 정규리그 5연승 기록을 이어가며 리그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문성민은 8일 뒤텐베르크 팀의 세트스코어 3-0(25-21 25-19 25-18)

슬리로 이끌었다. 마르틴스 파우스토(13득점)에 이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린 문성민은 팀에서 가장 많은 18차례 스파이크를 시도, 8차례 성공시키면서 44.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프리드리히스하펜은 이날 슬리로 정규리그 5연승 기록을 이어가며 리그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문성민은 8일 뒤텐베르크 팀의 세트스코어 3-0(25-21 25-19 25-18)